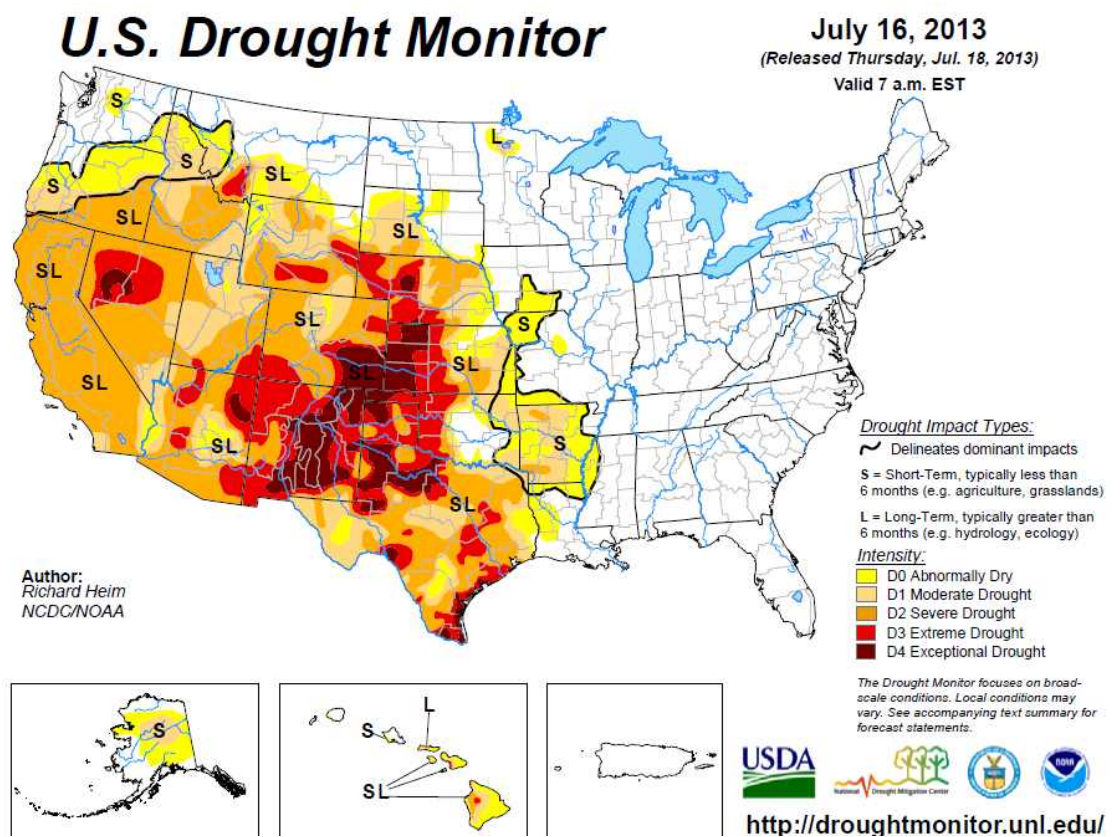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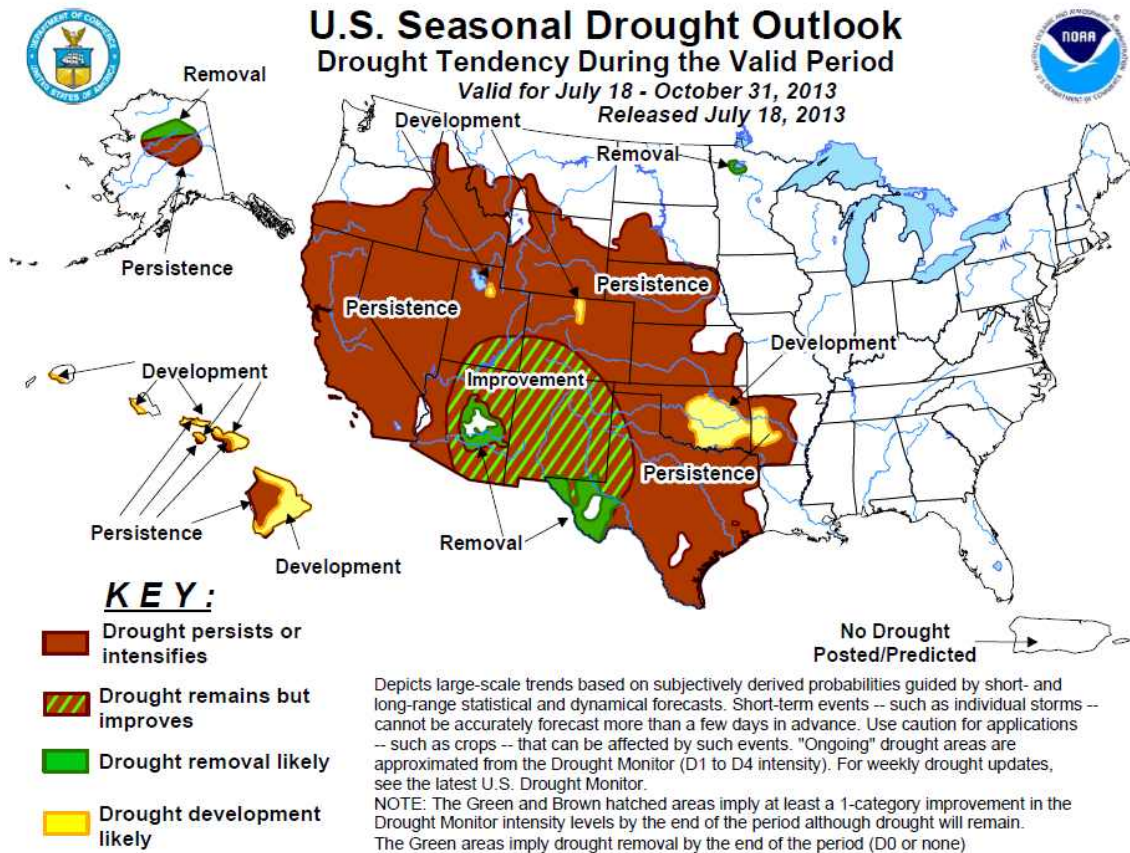
※ 7월 1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0, No. 30)

□ 미국 기후 현황(7/14~7/20)



로키산맥 남부 및 대평원에 서쪽으로 이동하는 대기요란(disturbance)을 동반한 호우가 내려 가뭄이 크게 해갈되었다. 반면 콘벨트 남서부는 단기적 고온건조현상으로 인해 생식성장단계의 여름작물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대평원 남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주간 총강수량은 2~4인치였으며 그간 가뭄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작물이 도움을 받았으나 돌발홍수(flash flood)현상도 발생했다. 아이오와 및 미주리 북부를 중심으로 한 중서부지역은 강수량부족이 문제되기 시작했으나 중남부지역의 경우 주말에 소나기가 내려 작물에게 수분이 공급되었다. 남동부지역은 호우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으며 플로리다에서 애팔래치아산맥 남부에 이르는 지역은 주간 총강수량이 2~4인치를 기록했다. 대서양연안 중부지역 및 뉴잉글랜드 남부지역은 여름철 들어 가장 심한 열파현상이 발생했고 기후가 건조해졌다. 5대호

연안에 이르는 지역(미시시피강 유역 상류에서 미국 북동부에 이르는 지역)까지 주간평균기온이 평년대비 최소 5~10°F 높은 수준이었다. 북서부지역의 기온 또한 높은 수준이어서 작물의 생육발달과 겨울밀의 성숙 및 수확이 촉진되었다.



□ 주간 농업현황(7/15~7/21)

남서부 및 대평원 남부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며 광범위하게 비가 내려 이례적으로 건조했던 상황이 완화되었고 토양수분이 증가했다. 특히 텍사스 남부의 평원지대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8°F 이상 낮았고 총강수량은 5인치 이상이였다. 그러나 그 외 지역은 고온건조하여 작물이 빠르게 성숙했고 수확기가 앞당겨졌으나, 생육발달 중인 작물의 작황은 나빠졌다.

옥수수: 7월 21일 기준 43%가 출사(silking)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41%p, 5년 평균대비 13%p 느린 수준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후가 온난하여 생육발달속도가 전주대비 10%p이상 진행되었다. 콘벨트 남부 및 서부에서는 현재 옥수수 생육발달과정에서 수분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단계인 생식성장기인데, 금주에 단기적으로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작황이 나빠졌다.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63%로 전주대비 3%p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37%p 높은 수준이다.

대두: 7월 21일 기준 46%가 개화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32%p, 5년 평균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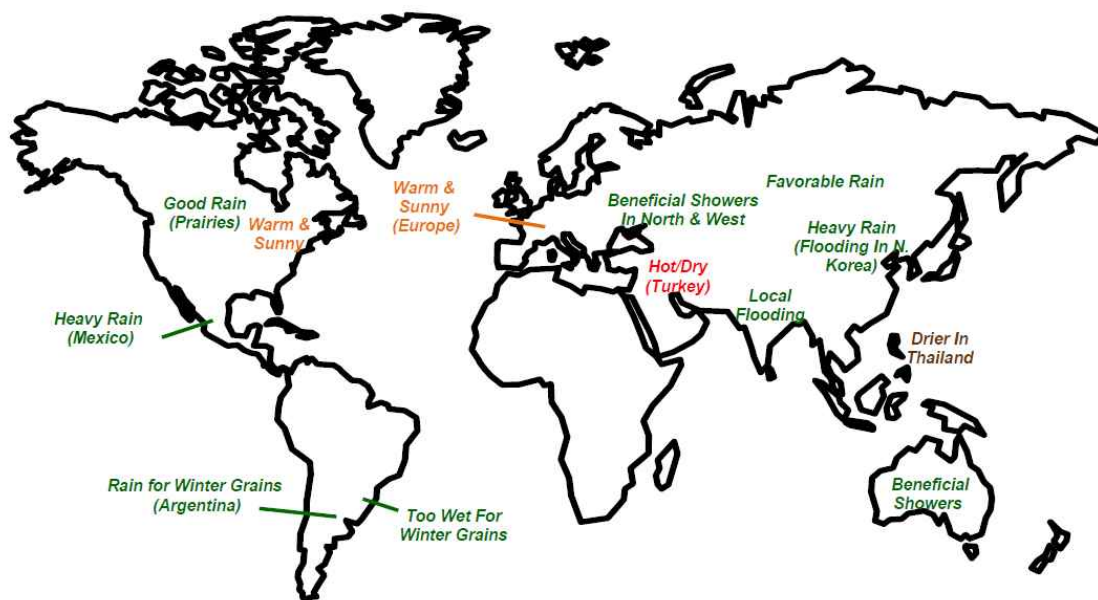
13%p 느린 수준이다. 일리노이는 최근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21일 기준 8%가 결협기(setting pods)에 진입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25%p, 5년 평균대비 11%p 느린 수준이다.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64%로 전주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33%p 높은 수준이다.

겨울밀: 7월 21일 기준 3/4가 수확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9%p, 5년 평균대비 소폭 느린 수준이다. 아이다호에서는 금주 기후가 고온건조하여 겨울밀이 급속하게 성숙했으며 다음 주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확이 진행될 예정이다.

봄밀: 7월 21일 기준 85%가 출수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2%p, 5년 평균대비 3%p 느린 수준이다.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68%로 전주대비 2%p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8%p 높은 수준이다.

쌀: 7월 21일 기준 24%가 출수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28%p, 5년 평균대비 8%p 느린 수준이다. 루이지애나에서는 수확을 위해 밭의 배수작업이 진행 중이다.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72%로 전주대비 4%p, 전년 동기대비 3%p 증가한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7/14~7/20)



- 유럽: 중부 및 북부유럽은 기후가 온난건조하여 수확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서부유럽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화창하고 기온이 평년보다 2~5℃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여 수확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한편 프랑스 서부 및 중부(30~34℃)는 생식성장단계의 옥수수에 대해 토양수분이 감소했고 프랑스 북부, 독일 북서부, 영국 남동부는 최근 60일간 총강수량이 평년의 50%도 되지 않아 단계적 가뭄이 문제화되고 있다. 유럽 남동부의 이탈리아와 다뉴브강 유역에서도 기온이 30℃이상이어서 생식성장단계의 옥수수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한편 동부유럽의 기온은 평년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그리스에 소나기(강수량 20mm)가 내려 옥수수에 수분이 보충되었다.

- 구소련(서부): 남부(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 남부에 이르는 지역)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건조(30-36℃)하여 생식성장단계의 옥수수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우크라이나 중부 및 북부에서도 건조기후로 인해 옥수수 작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편 서부 및 북부(벨라루스에서 러시아 중부 및 볼가구역에 이르는 지역)는 기온이 평년수준이었고 광범위한 지역에 소나기가 내려 작황이 좋아졌다.
- 동아시아: 중국 동부에 강한 장마비(100mm 이상)가 내려 생식성장단계의 작물에게 토양수분이 충분~과도한 수준이 되었다. Heilongjiang 서부와 Jilin에서는 강수량 50~100mm의 비로 인해 생식성장단계의 옥수수, 대두, 쌀에 대한 토양수분이 충분하게 유지되었다. Heilongjiang 동부에도 강수량 25-50mm의 비가 내려 작황에 도움이 되었다. Liaoning과 인근 내몽골지역에도 호우(75-150mm)가 내려 이 지역의 수분부족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 화북평원지대 동부 및 양쯔강 유역은 호우(75-200mm)로 인해 토양이 침수되어 작물의 생육발달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남부 및 남동부지역은 주간강수량 50~100mm이 기록되어 쌀에 수분이 충분하게 공급되었다. 특히 열대 싸이클론 Cimarón으로 인해 Jiangxi 남부지역의 강수량은 200mm 이상이었다. 한편 쌀 주산지인 Hunan, Zhejiang에는 여전히 건조한 지역이 남아있으며 이 지역의 7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크게 적은 수준이다.
- 호주: 밀벨트에 광범위하게 소나기가 내려 겨울밀 작황이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남부지역 밀벨트(La Pampa 및 Buenos Aires의 남쪽지역)에 가벼운 소나기가 내려 발아단계의 겨울밀에게 적시에 필요한 수분이 공급되었다. 그러나 중부지역은 건조했고 간헐적으로 기온이 영하로 하락하여 발아속도가 둔화되었다. 북부지역에는 산발적 소나기가 내려 겨울밀의 수분이 증가했다. 아르헨티나 농업부에 의하면 7월 18일 기준 옥수수 수확율은 94%로 전년 동기의 92%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겨울밀 파종율은 80%로 전년 동기대비 소폭 높은 수준이다.
- 브라질: 남부지역에 국지적 호우(10-50mm)가 재개되어 겨울밀 작황에 대한 우려가 재개되었다. 소나기는 주초에 Rio Grande do Sul에 내리다가 주중 북쪽으로 Parana, Mato Grosso do Sul 남쪽, Sao Paulo로 이동했다. 이 비는 사탕수수의 수확작업을 저해하였으나 2기작 옥수수 및 생육성장단계의 겨울밀에게 충분~과도한 수분을 공급했다. 북부지역은 계절적이지 않게 온난하여 주간평균기온이 평년대비 최대 2℃ 높고 낮 최고기온이 30℃에 육박하므로 수분증발율이 높지만, 비로 인해 작물에 공급되는 수분이 과도한 수준이다. 한편 중부지역은 온난건조하여 2기작 옥수수의 생육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 캐나다 평원: 온화하고 소나기가 내려 생식성장 및 등숙단계의 보밀 작황이 좋아졌다. 최근 수주간 계절적이지 않게 온난했으나 금주 주간평균기온은 평년에 가까운 수준이 되었다.